

로버트 A. 피터슨 박사(Dr. Robert A. Peterson), 누가- 사도행전의 신학, 세션 20, 누가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차원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0, Darrell Bock,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원의 차원입니다.

누가-행전 신학 과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누가-행전에 종합된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요약 결론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가복음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과 사도행전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좋은 책들을 읽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도록 자극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럴 보크(Darrell Bock)은 그의 훌륭한 누가-행전 신학(A Theology of Luke-Acts) 11장에서 우리에게 누가-행전의 구원의 여러 차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누가와 구원을 좀 더 종합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이끈다. 이제 우리는 사물을 하나로 모으고 끌어당기며 특히 누가의 구원 교리와 그의 구원론의 추세를 특히 연결되고 상호 연관되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누가의 저술에서 광범위한 분야이며 이 글을 종합적인 개요로 살펴보면 실질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구원의 범위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메시지 인증이 복잡합니다. Bock은 여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세 가지 주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구원의 객관적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다섯째, 주관적인 측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음을 기록합니다(행 15:7).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15장 15절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0장 13절, 34절부터 43절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 메시지의 좋은 예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동사 euangelizo 의 사용은 신약의 다른 곳보다 누가복음에서 더 자주 사용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용법 중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좋은 소식의 내용이 더 구체적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실제로 그분이 사도적 설교의 초점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의 대부분은 요약 선언과 관련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은 베드로가 복음과 그 유대적 뿌리를 검토하는 이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은 이루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좋은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니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복음에 관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즉 “말씀”, “미안함”,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 메시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행복 관계인 평화의 기회가 담겨 있는데, 이제는 사람 사이의 평화로도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구약의 샬롬 개념이 신약에 에레네(ereine) 로 도입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셨고 이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묘사되었습니다(행 2:36). 높여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며,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주제로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구원이 실제로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군중에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과 41장에 나오는 고전적인 예언적 유대 자연신학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행전 14장에서 순전히 이방인인 이방인들에게 한 첫 번째 연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책임지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과 이방인의 관계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열방과 관계를 갖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행 14:16). 지난 세대에는 그분께서 민족들이 각자의 길을 걷도록 허용하셨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비와 계절과 풍성한 음식을 통해 일반계시를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에서 볼 수 있는 연설에서 복음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와 그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초대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연설에서 복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있습니다.

설교는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행위 아래의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설교라는 명사는 누가복음 11장 32절에만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설교하다라는 동사 keruso가 더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함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약의 희년 이미지에 호소함(눅 4:18, 19).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42.43은 사도들의 설교에 대한 중요한 요약を提供합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바로 곧 심판관으로 정하신 이시며,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 곧 모든 사람의 심판관으로 정하신 이임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관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승천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그가 주님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궁극적인 종말론적 재판관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모든 선지자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하였느니라. 이 용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의 핵심 반응인 믿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사도적 증언과 구약의 예언적 증언 모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에는 세 번째 소재목인 복음, 전파,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 때문에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눅 4:32). 그는 누가복음의 몇 가지 주요 담화와 함께 말씀, 비유, 예언적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주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의 현재 사역부터 재림까지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았듯이, 오순절 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의 부활 메시지(행 17:19)를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명사인 디다케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동사 디다스코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바닷가의 배 위에서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도시와 마을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 특히 식사 때 예수님의 가르침(5:29, 7:36, 22:14, 24:30)과 그 사이의 많은 구절을 좋아합니다. 누가는 가르치는 일이 교사와의 친밀감이 확립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르침에 대한 강조는 때때로 교사이신 예수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행 1:1). 사도들은 부활과 예수의 이름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권위자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행 4:2, 4:18, 5:21, 5:25, 28:42). 바울은 고린도(행 18:11, 에베소 18:25)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가르칩니다. 나중에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가르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행 20:20). 사도행전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행 28:31). 누가-행전의 가르침은 복음 제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인 반면, 누가-행전의 설교는 구원의 메시지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의 범위는 우리의 두 번째 주요 머리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난한 자, 죄인, 소외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약속. 누가는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점은 유아서사의 구원개관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난다. 스가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다윗의 집의 뿌이신 예수에 대하여(눅 1:69) 어둠과 죽음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취는 떠오르는 빛이라고 말합니다(눅 1:78-79). 그러한 활동은 하느님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되, 행 2:39. 이 규정의 범위는 누가복음 2:30-32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위해 주어진 빛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빛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 언어는 이사야서 42:6, 46:13, 49:9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임, 누가복음 3:6. 이 보편적인 언급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서 새 공동체의 메시지는 모든 민족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별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행 1:8)을 인용함으로써 이 이방인에 대한 강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연설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도 이 메시지가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Paul은 말합니다. 이 이방인 포함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항상 열방의 축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행 3:25, 26)과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눅 2:30-32, 행 13장)이었기 때문입니다. 47. 수많은 본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7:1-10은 9절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보다 뛰어난 믿음을 지닌 이방인 백부장을 묘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께 반응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요르단 강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을 여행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때때로 이방인에게도 봉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올 왕국의 잔치에 먹으러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눅 13:22-30). 예수께서는 현재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눅 21:24)라고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강조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사울의 부르심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방인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누가의 강조는 교회의 복음 메시지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관대하며,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변증적 주장입니다.

범위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범위는 가난한 사람, 죄인,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가복음 1:46-55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은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초점은 예수님의 설교를 대표하는 세 가지 표현인 누가복음 4:18, 누가복음 6:20-23, 누가복음 7:22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제공됩니다. 죄인들은 또한 누가복음에서 특별한 언급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반대자들은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제공하시는 것에 대해 자주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5:27-32, 누가복음 19장과 7절 그리고 그 사이의 여러 곳까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거부된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이며, 그 문화에서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이자 반역자로 간주됩니다.

누가복음 18:9-14에 있는 대중의 기도와 삭개오에게 오는 구원, 누가복음 19:1-10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복음이 인류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죄가 많은, 세리든, 가난하든 복음은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인 증은 세 가지 수준입니다.

메시지 인 증, 세 가지 인 증 수준. 메시지와 함께 인 증이 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권위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고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를 통해 인 증 되셨습니다. 둘째, 흔히 표적과 기사라고 불리는 기적을 통한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첫째, 누가복음에는 성경적 성취라는 주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 주제의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4:18-21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는 성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둘째,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는 기적을 통해 확증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분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의 기적을 가리키며 대답하셨습니다(눅 7:18-23).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적이 이전에 안전한 거처가 함락된 사탄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탄이 압도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1:22.

승리와 구원의 그림인 사탄에 대한 권위의 그림은 누가복음 9장, 1장, 2장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비슷한 권위가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스테반, 빌립,

바울과 바나바 등 여러 개인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셋째, 복음 메시지의 세 번째 확증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의 임재이다.

누가복음 21:18-21. 사도행전 24:49. 사도행전 1:8. 행2:14-22, 행10:38, 행11:15,16. 구원의 객관적 측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세주, 구원하다라는 말은 구원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2:11, 예수님은 약속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재난,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눅 8:36).

야이로의 딸, 8:50. 사마리아 나병환자, 17:19. 눈먼 거지, 18:42.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죄 많은 여자는 그녀의 행동에 나타난 태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50.

구원 (save)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27장, 20장, 31장에서 사용되지만, 이 용어의 대부분의 사용은 치유나 설교 행위와 함께 발생하는 요약 설명입니다. 사도행전 2:47. 사도행전 4:12.

사도행전 11:14,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부르는 이 주님이 바로 예수라고 설명합니다(행 2:36). 그는 용서를 베푸시고 진노를 면하시며 성령을 주시어 구원하십니다(행 2:38-40).

또 다른 핵심 요약은 사도행전 16장, 30장, 31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말합니다. 구원을 뜻하는 명사 soterion, soteria 의 의미는 구원하다라는 동사 sozo 의 의미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구원은 누가복음의 핵심 개념이다.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간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눅 1:68-79).

그것은 모든 종족에게 제공됩니다(행 10장과 11장). 오직 예수께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것은 사도적 메시지의 중심이며,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 회개, 돌이킴, 믿음의 주관적인 측면. 구원의 주관적인 측면은 구원의 개인적 소유를 가리킨다. 누가는 이 근본적인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합니다.

누가는 메시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의 다차원적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며, 각 용어는 그 반응 내의 성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세 가지 용어는 회개, 돌이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개념은 회개입니다. 이는 명사 회개(메타노이아)로 표현되거나 회개하라는 동사 메타노이에오(metanoieo)로 표현됩니다.

누가는 회개의 신학자이다. 왜냐하면 그가 명사를 사용한 11번의 용법이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용례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즉 회개하기 전의 관점에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눅 3:3). 회개를 묘사하는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5장 30-32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병든 죄인들을 불러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회개는 영적인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미래의 메시지에 관해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에서 사용한 용어는 회개입니다(행 24:47).

사도행전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예수를 통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제공됩니다, 행 20:21. 사도행전 26장 20절은 바울이 설교할 때 무엇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회개하라는 동사는 용서를 받도록 초대하는 요약문에서 사용됩니다.

돌이키는 것, 구원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누가복음의 또 다른 핵심 용어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누가복음 1, 17장). 돌이키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일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소외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회개와 비슷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용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돌이킨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서는 그 결과입니다(행 3:19).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도행전 26장 18-20절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용어가 여기에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누가에게 회개는 응답자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

회개, 돌이킴, 믿음. 이는 믿음 (pistis)과 믿는 것 (pisteuo) 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사건은 자신이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했습니다, 누가복음 22:32. 사도행전에서 믿음이라는 명사의 용법도 비슷합니다. 때때로 기독교 운동은 실제로 믿음이라고 불렸습니다(행 6:7, 16:5).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행 20:21, 24:24).

누가복음에서 '믿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을 믿기 위해 동사 pisteuo를 사용하는 대부분은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한 것입니다(행 2:44, 4:32 등). 믿음은 행 13:39을 의롭게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리라(41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느니라 (행 13:48)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15:11, 18:27. 마지막으로 구원의 유익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의 차원. 좋은 소식, 구원의 범위, 메시지의 인증, 구원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 구원의 유익 등을 선포합니다. 죄 용서, 누가복음 3, 3. 누가복음 4, 18, 예수의 사역.

삶. 구원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 누가복음 12:15.

사도행전에서 생명은 부활의 결과로 간주됩니다(행 2:27-28). 예수께서 제공하신 것은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부르실 수 있게 해줍니다(행 3:15).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3장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자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행 13:46).

선물. 누가는 여러 번 은사, 즉 은사를 언급하는데, 이는 주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행 2:38, 8:20, 10:45, 11:17). 평화.

구원의 또 다른 유익은 평화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된 관계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14.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행 10:36). 은혜 또는 호의(xaris)는 또 다른 구원의 혜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나 은혜를 찾는다는 개념은 셈족주의입니다.

창세기 6:8, 사사기 6:17, 사무엘상 1:18. 누가의 글에서 그것은 신성한 사역의 표현입니다. 호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과 공동체 위에 임합니다. 행 4:33,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느니라. 사도행전에서 은혜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은 구원이나 그 메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 11:23, 13:43, 14:3, 15:11, 20:24, 32. 정당화하십시오. 정당화라는 단어가 기술적이지 않은 의미로 등장하지만 누가가 이 용어의 핵심 구성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기도를 그치고 떠나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칭찬은 교만한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의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찬양 시편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금 징수원의 겸손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로 돌이키는 것은 단지 자비를 구할 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론. 구원은 누가복음-행전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며, 성령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과 평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용서와 영과 생명의 혜택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의 임재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르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반영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연결된 은혜에 감사하며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기 위해 돌이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0, Darrell Bock,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원의 차원입니다.